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5. 11.(목)

신도시 등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서울신문, 5.11) >

◆ 도시개발 3대 악순환 ... 신도시 '교통지옥' 갇혔다.

-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수요 예측 등 실패로 혼잡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며,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도 지자체 간 갈등, 보상 등의 문제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면서, 개선 대책 지연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큰 지구를 **집중관리지구**로 지정,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관리지구 총 29개 중 23개 수립, 6개 지구 5월 중 수립 예정

- 다음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도 운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22.7~'23.3까지 출퇴근 운행 680회 이상 확대, 39개 노선 집중관리 착수(3월)

□ 3기 신도시는 후보지 선정 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기본안을 수립하고, 지구 계획 수립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우선 확정**하여, 개선대책 수립 기간을 2기 신도시보다 12개월 이상 단축하였습니다.

* 철도 사업의 경우 **상위계획 반영** 및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시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시까지 기간을 **약 6.5년 단축**

- 아울러, '22년 착공한 인천 계양지구
- 에 이어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모두 정책 일정에 맞추어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 단축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GTX 및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5045)
		담당자	사무관	권호정 (044-201-5056)
	광역교통정책국 광역버스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5065)
		담당자	사무관	김 준 (044-201-506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차상헌 (044-201-4505)
		담당자	사무관	하태아 (044-201-4526)



참고

수도권 보완대책 추진현황 등

□ 수도권 집중관리지구 보완대책 추진현황

진행상황	지구명 및 진행상황	발표시점
완료지구* (23개)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 (2개)	‘22.10월 (특별대책)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2, 3, 오산 세교2 (5개)	‘23.3.2 (평택 고덕 특별대책)
	고양권(삼송, 식사, 원흥, 지축, 향남), 남양주(별내, 진건, 지금), 구리 갈매 (9개)	‘23.4.6
	하남(감일, 미사), 위례, 양주(옥정, 회천), 과천 지식, 수원 광고 (7개)	‘23.4.17
진행지구 (6개)	시흥(장현, 은계, 군자, 목감), 광명 역세권, 의정부 고산 (6개)	‘23.5월중

* 광역버스 61대, 시내버스 121대, 마을버스 84대, DRT 95대 투입 등

□ 광역버스 집중관리 노선 추진방안

- 지자체, 운수업체와 공동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피크시간대 집중배차, 중간배차, 2층버스 투입 및 좌석예약제 확대 등 노선별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여 혼잡을 점차 해소할 예정